

중국 농업 과학원산하 하얼빈 수의연구소

윤 훈 남*

편집자 주

윤훈남 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친척방문으로 고국을 찾아 생활하던중 지난 1월 15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중국 농업부소속 과학원산하 하얼빈 수의연구소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어 어법의 교정없이 이를 지상 요약 편집하였다.

저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친척방문을 하러온 중국교포 윤훈남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대한민국 가축위생연구소의 소장님 그리고 병리와 과장님의 열성적인 접대, 여러 선생님들과 이자리에 모여 서로 토의하는중 많은 지식을 학습할 생각을 하니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이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군인데 해방전 우리 부모들께서 머리를 좀 영민하게 쓰지 못한 탓으로 중국으로 들어갔나 봅니다. 때문에 저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하얼빈의 한국계 학교에 다녔지만 한국계 대학교는 길림성 연변자치주에 대학이 좀 있지만 수준상 매우 낮으므로 저는 동북농학원 수의과를 74년도에 필업(졸업)하고 이후 지금까지 중국농업과학원 수의연구소 조리(助理)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업(전문) 방면에는 한국말이 능통하지 못하므로 실수가 많을 것이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미리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우리 연구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얼빈 수의연구소의 행정령도(감독)는 중국농업과학원의 직접적인 령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와 연구원들

의 노금(월급)은 과학원에서 줍니다. 연구항목은 일반적으로 농림부에서 결정한 여러 가축들의 전염병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을 짭니다. 이 계획은 연구실의 주임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연구회 처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합니다.

우리연구소는 총인원은 약 500여명 입니다. 그중 전문연구하는 분은 약 180명 가량되고 그 나머지는 실험실 공인(보조원)과 행정인원입니다. 우리연구소는 당 지부 서기가 두분이고 연구소 소장도 정, 부로 두분 입니다. 그 밑에 11개 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은 3년만에 한번씩 반 민주 반 당에서 결정지어 선거합니다. 만약 3년동안 사고가 없고 임무를 완성하면 이후 계획 3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의 임무는 일반연구부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할뿐아니라 외국인들의 합작방문시 인원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소장님이 임무를 각 연구실에 분배하면 연구소 주임이 소요인원을 결정하고 다시 실험실 임무를 분배하며 연구계획을 짭니다. 이런 조직자가 될려면 반드시 부연구원 이상이어야 자격을 줍니다.

제1연구실은 주요하게 돼지질병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세균성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예방주사를 놓아야 병이 안걸리며 만약에 예방되었다 할때 어떤 생체내 조직변화가 큰가 하는 방면에서 연구하는바 예를들것 같으면 돼지 대장균설사병, 돼지 흉막폐염, 돼지 위축성비염, 돼지 단독 등 입니다.

제2연구실은 역시 돼지병을 연구하는데 주요로 병독(바이러스)으로 인한 돼지 전염병이 그 대상입니다. 돼지 전광견병(가성광견병), 돼지 전염성위장염 등을 연구합니다.

제3연구실은 전문 닭병을 연구하는데 주요로 닭

* 하얼빈 수의연구소 연구원

마래병, 닭 전염성 뇌척수염, 전염성 기관지염 등이 그 대상입니다.

제4연구실도 역시 닭병을 연구하는데 주로 닭 백혈병 등 11가지 병의 진단액, 고면역력청, 양성혈청, 항원·항체를 연구하고 생산합니다. 주로 지금 우리나라(중국)와 오스트리아가 합작해서 닭 SPF 실험실을 하나 건립했는데 주로 이 SPF계군을 위해 복부합니다.

제5연구실은 소(牛)병을 연구하는데 주로 소의 백혈병, 소 유행성 감기 등으로 이병 역시 오스트리아와 합작해서 연구하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오스트리아인이 우리연구소에 와서 일하고 우리연구소 사람은 오스트리아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제6연구실은 주로 말(馬)병을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말 전염성 빈혈에 관해 많이 연구합니다. 이 병균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으므로 다량 생산해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합니다. 수출하는 국가는 주로 구라과 혹은 소련입니다. 저도 이 항목에 참가해 병리부문의 이 질병면역에 관해 연구해서 중국농업부 1등상을 받았습시다.

제7연구실은 주로 양(羊)병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중 양의 전염병과 산양의 관절염 등을 주로 연구합니다.

제8연구실은 중요한 경제동물병을 많이 연구하는데 토끼의 전염성 출혈병, 너구리병, 개병 등이 그 대상입니다.

제9연구실은 바로 제가 있는 병리실입니다. 우리 병리실은 주로 우리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병리형태와 진단·해부 그리고 병리면역·형태학도 연구합니다. 직원은 8명이며 그중 주임이 한 분이고 연구원이 두명이며 한분은 전자현미경을 전문 수리하고 조절하는 분입니다. 나머지 2명은 실험실의 조공원(助共員:보조원)이며 공인 한분은 해부한 동물을 태우고 처리합니다. 수십편의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우리연구실에서는 근래 몇년동안 많은 상장을 탔습시다. 백혈병 병독을 양한테 접종하고 한 일년 있으면 양이 발작하면 흑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병리연구도 중국 농업과학원의 2등상을 받았으며 말 빈혈병의 형태학으로 1등상을, 사슴과 소의 결핵병 3등상을, 소 이바라기병의 병리형태학은 3등상 등을 받았습시다.

지금은 주로 말의 전염성 빈혈병 후기일을 연구하고 동시에 주로 전국 각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

는 병의 기축해부와 병리진단을 내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항목은 소의 백혈병 병독을 양한테 투여한후 8개월 내지 1년후면 양한테 흑이 생기는데 세포막과립을 절취하여 항원 100mg를 쥐에 접종합니다. 모두 세번하는데 마지막 접종한후 3일만에 쥐 비장과 암세포를 합하여 세포배양해서 융합주를 번식해서 유용한 항체를 선발 계속 대량으로 증식시킨후 이 세포를 이용 다시 소와 양의 혈청에서 항원을 찾는 연구를 합니다.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데 많은 연구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제10연구실은 생물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실입니다.

제11연구실은 전문적으로 배양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주로 연구소에서 쓰는 일체의 배양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정밀기계실이 있어 어떤 연구실에 없는 기계를 사용할때는 이 실에 가서 쓰면 됩니다.

연구소는 대개 이렇게 11개 연구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구소의 실험기계는 대개 보면 모두 미제와 일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도서관의 잡지 역시 미국, 일본, 영국재료가 많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합작해서 작은 동물용 SPF 실험실은 새로 하나 짓는 중이며 오스트리아가 원조하는 닭의 SPF 실험실을 이미 하나 지었습니다. 연구할때 응용하는 실험방법은 세균 배양, 병독분리, 강독배양, 순화배양, 조직배양, 보체 결합검사, 중화시험 등등입니다.

여기서 제일 새로운 방법은 유전공학을 접종하는 것으로 우리연구소에서 일반학사 이상의 젊은 청년을 미국 또는 일본에 많이 파견하여 지식을 배양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의 지식은 이미 노화해서 새로운 형태에 알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나이 또래는 10년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원래 학교에서도 배워야할 지식을 많이 배우지 못했고 외국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혁명한다하고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노동자, 농민이 일하지 않는 난잡한 질서일 뿐만 아니라 지식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외국으로 간분이 많고 귀향하여 10여년간 돼지먹이 사양질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여년간 감옥에서 보낸 지식인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문화혁명이 없었고 지식이 중단됐다면 우리 중국도 많이 발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래 몇년

동안 개발정책이 나온후 외국인과 많이 합작하여 자원을 많이 개발함으로 국내 주민의 생활수준도 많이 늘어 났습니다.

우리 지식있는 사람의 지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지식인이 외국으로 갈까봐 많이 겁나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선전하여 외국에 간 유학생에게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오라고 많이 선전합니다.

공신은 보너스, 위생비, 도서비, 보건비 등등을 모두 합해서 한달에 한 25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 주임연구원 여기서 말하면 교수급의 공신이 모두 합해서 약 300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기에 중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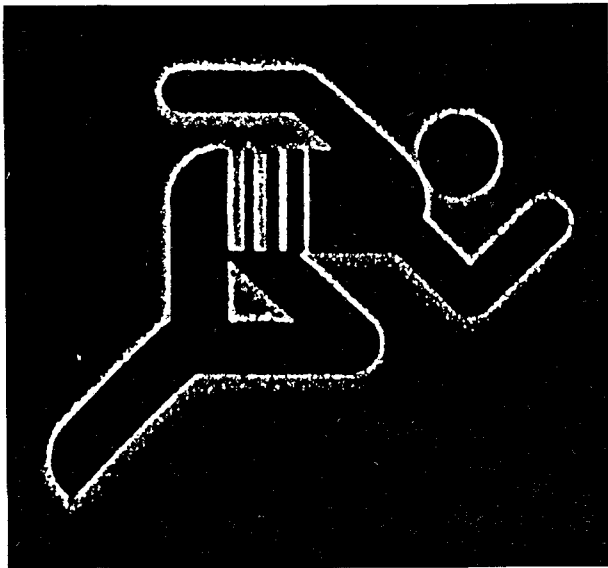
아무 지식이 없는 장사군이 하루에 버는 돈이 우리 교수의 3~4배나 더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공신을 한번 높인다해도 하도 많은 액수가 소요되므로 일반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오늘 준비없이 간단이 이렇게 말씀들이며 만약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많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귀한 시간을 많이 양해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고귀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주신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 병리과 과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8 서울올림픽 100m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실격되었던

벤·존슨이 맞았던 문제의 주사



인간탄환 칼·루이스를 제기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벤·존슨, 그러나 약물 복용으로 실격되어 또 한번 파문을 일으킨 그 문제의 약이 바로 단백동화제(Anabolics)입니다. 그러나 가축은 실격당할 염려가 없으며 오히려 그런 약제가 꼭 필요합니다. 사나보리컴은 오스트리아 BIOCHEMIE 사가 개발한 세계 특허의 단백 동화제로서 1회 주사로 허약·위축증이 건강돈을 따라잡고, 사지·골격이 장대하고 살집이 두툼한 돼지가 됩니다.

체질개선, 단백동화제

사나보리컴[®]



주식 과학축산
서울사무소 : 홍신구 한강로 2가 316-1
대 표 전 화 : 795-2361 (~5)